

무주공산...정치 신인들 대결 뜨겁다

4·15 총선, 이곳이 관심 선거구 (9)여수

			
정당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무소속
이름 김희재(57)	임동하(72)	김진수(60)	권세도(61)
학력 연세대 법학과 졸업	안주중학교 졸업	전남대 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졸업	조선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 (전)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현)민주당 정책위의장	(현)미래통합당 여수시를 조직위 원장	(현)한국작가회의 이사 (전)여수민족예술인총연합회장	(전)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전)민주당 국민통합위 부위원장
주요 공약 ·울촌산단 4차 산업혁명단지 조성 ·노후산업시설의 친환경 ECO 산업단지화	·전통시장 현대화 개선 사업 ·지역인재채용 특별전형 신설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도시 ·여수사건특별법 제정	·울촌 3산단의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추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여수를 선거구는 지역에서 정치적 입지를 견고하게 다져왔던 4선의 주승용 국회의장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정치 신인들의 대결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57) 후보와 미래통합당 임동하(72) 후보, 정의당 김진수(60) 후보, 무소속 권세도(61) 후보가 선거 막바지 표심 잡기에 '열인'하고 있다. 김희재 후보는 정치 초년생임에도 당내 경선에서 지역위원장을 쥐고 공천권을 거머쥐는 저력을 보였다.

김 후보는 정치 신인인 만큼 지역 정치의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걸고 선거기간 동안 '통합과 포용'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분열과 대립, 갈등과 반목의 잘못된 지역의 정치행태를 이번 선거를 통해 통합과 포용, 소통과 협력의 새정치로 바꾸겠다는 김 후보의 의지가 담겼다.

김 후보는 "여수시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로의 세대교체를 바라고 있다"면서 "30년간의 풍부한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정·관계에 탄탄한 중앙인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이 필요한 지역인재 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지역거점 종합병원 유치 ▲해양레저 휴양특구 지정 및 품격있는 문화예술관광 휴양도시 건설 ▲여수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추진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다.

김 후보는 섬진강환경유역청 신설을 통해 남해안권 환경오염문제에 적극 대처, 그리고 여수국가산업단지 특별법 추진을 통한 지역인재 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지역거점 종합병원 유치 ▲해양레저 휴양특구 지정 및 품격있는 문화예술관광 휴양도시 건설 ▲여수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추진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다.

사회복지사업 전문가로 꼽히는 미래통합당 임동하 후보도 선거 막바지 막심 잡기에 여념이 없다.

임 후보는 그동안 지역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해왔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는 지역 현안과 필요한 일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주민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만큼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강한

민주당 김희재, 세대교체 기치 표심공략 미래통합당 임동하, 사회복지사업 전문가 정의당 김진수, 문화예술인 시민운동 활동 무소속 권세도, 경찰 출신 인지도 강점

추진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다. 임 후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개선사업, 지역인재 채용 특별 전형 신설을 통한 신규 채용 우선권 보장, 내집 앞 유아·초등 돌봄 센터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김진수 후보는 시인으로서 여수 민족예술인총연합회장을 지내는 등 문화예술인으로 왕성한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불공정·불평등, 극단적 양극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강해 정치판에 뛰어 들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촉발된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공정·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일제에 도달해 서민들의 삶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단절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 서민을 잘살게 할 사람이 누구인지, 가면으로 포장된 특권층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거침없는 민생대개혁을 통한 서민복지 실현 ▲여수사건특별법 제정 ▲부정부패 적결과 정의와 공정을 통한 기득권 구조의 악순환 단절 등을

약속했다. 경찰서장 출신인 무소속 권세도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권오봉 현 시장에게 석패했다. 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만큼 인지도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옷을 입고 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와신상담'했던 권 후보는 또 다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 1차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택했다.

권 후보는 컷오프 된 이후 "평당원으로 돌아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제2의 정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했으나 돌연 입장을 바꿔 무소속 출마로 선회했다.

그는 "특정후보 공천 몰아주기의 문제와 경선과 이에 따른 후유증 및 원성이 지역사회에 들끓처럼 번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출마를 결심했다"고 무소속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간 고소·고발 등 진흙탕 싸움으로 시민들이 등을 돌린 점, 주승용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 김희재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따른 검찰 수사 등으로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공약으로는 ▲여수~용산 KTX 1시간 50분대 추진 및 수서 SRT 노선 신설 추진 ▲국제해양관광센터 건립 및 2026 세계 삼박람회 개최 지원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역 우수인재 고용의무화 추진 ▲여수산단 재난 대비 응급의료 권역의상센터 설치 ▲여수산단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근절 ▲산단 노동자 생활복지 확대 등을 내세웠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민생당 "양향자 불법선거의혹 신속 수사를"

민생당 선대위 이연기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양향자 후보 측의 잇따른 불법선거의혹,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을 통해 이 대변인은 "광주 서구를 민주당 양향자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상 불법 항응제공 등 기부행위 위반 의혹이 보도됐다"면서 "양 후보 후원회장 A씨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지역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양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제보가 있어 경

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 후보의 후원회장 A씨가 지난 1월 31일 저녁 서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등 7-8명에게 반주를 겸한 식사를 제공하면서 양향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알려졌다"며 "양향자 후보는 지난 3월 30일에도 불법전화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4명이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미래통합당 주동식 서구갑 후보 세월호 막말

미래통합당 주동식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세월호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9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주 후보는 2018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자리 창출 고민할 것 없다"며 "앞으로 세월호 하나씩만 만들어 침몰시키자"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월호 2, 3, 4...1천 척만 만들어 침몰시키자"며 "정상 조사위 등 양질의 일자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시기에 세월호 특조위 27기가 시작되는 것을 두고는 "세월호 산업이로

구나. 세월호 통해 무궁무진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종교를 만들어라. 성지는 팽목항...교주는 문재인(문재인)"이라며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주 후보는 또 전남 KCTV 광주방송의 초청 토론회에서는 5·18을 두고 "광주는 80년대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 생산 대인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총선 라운지

"4·15총선 사전투표 적극 동참해 달라"

이형석 민주당 복구를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광주 복구를 국회의원 후보는 9일 "광주 유권자 여러분께 4. 10일과 11일 실시되는 21대 총선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투표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며 광주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2022년 정권 재

창출 그리고 광주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신속 추진"

이용빈 민주당 광산갑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는 9일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광산의 성장거점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 광주송정역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선정 이후 개발사업의 추진방식 변경으로 장기간 표류하다가, 이달부터 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KTX 투자선도지구 사

업이 본격적으로 오른다"며 "올해 안으로 국토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철도공사와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신축사업에 조기에 추진해 주변 교통혼잡과 주차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판세 분석

여수를 선거구는 애초 지역 내 정치적 입지를 견고하게 다져왔던 주승용 국회의장의 불출마로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후보의 무혈입성이 기대됐다. 하지만, 무소속 권세도 후보의 등장으로 선거 기간 내내 치열한 경쟁구도를 보였다.

김 후보는 정치 신인임에도 특유의 거침없는 소통과 열정, 친화력을 앞세워 막심 잡기를 파고 들었고, 지역 민주당 조직도 흡수하면서 빠르게 지지세를 확산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주 부의장의 불출마로 인해 민생당 일부 조직도 흡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과 포용'이라는 슬로건도 그동안 갈등과 대립양상을 보이던 지역 정치권

민주당 김희재 강세 속 무소속 권세도 세 확장 '다크호스'

에 실망해온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지지기반을 넓혀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반적인 판세를 김희재 후보의 강세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당 지지율과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민주당 바람'이 거세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는 무소속 권세도 후보도 2년 전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였던 만큼 기존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한 세 확장에 나서면서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특히 민주당 김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공격하면서 "만드시 살아서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읍소하는 등 민주당 지지세력을 흡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 김진수 후보가 민주당 김희재 후보의 저격수를 자청, 권세도 후보와 협공을 펼치면서 양 후보 간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수를 선거구의 경우 청장년층이 많고 여론 성향이 강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만큼 결과를 선불리 예측할 수 없는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